

2018-1학기 교환학생 활동 보고서

2013-11421 이은서

July 27, 2018

수학 기관 : TU Graz

1 준비

1.1 지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후 TU Graz에 이메일로 직접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요구하는 문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지원이 완료됩니다. 담당자분께서 서류를 잘 받았고, Letter of Acceptance와 자세한 정보를 10월 중순에 보내주겠다는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1.2 기숙사 신청

10월 중순에 Letter of Acceptance와 함께 기숙사 정보가 포함된 Information package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한국은 기숙사가 대학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Graz는 Home4student, OEAD, WIST 등의 기숙사 업체가 여러개의 건물을 기숙사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학생들은 따로 flat을 구하거나 기숙사 업체를 통해 기숙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TU Graz에서는 OEAD라는 업체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후기에서도 OEAD 기숙사를 언급하고 있어서 저도 OEAD 기숙사를 신청했습니다. OEAD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채우고 지원료를 결제하면 지원이 완료되는데 선착순으로 배정을 하는지 늦게 신청한 다른 친구의 경우 1순위 기숙사에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TU Graz에서 OEAD를 추천해서 그런지 대부분의 TU Graz 학생은 OEAD 기숙사에서 살고, Uni Graz 학생은 다른 업체 기숙사에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OEAD가 다른 기숙사에 비해 비싼 편인데다 이것저것 제한하는 것이 많아서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공용 공간이 있는 1인실로 비교해볼 때 OEAD는 방세 395+ booking fee 15로 매달 410유로를 내야하지만 시설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WIST의 경우 274유로 정도로 100유로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좋은 기숙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3 ESN pick up 서비스 신청

비행기나 버스를 타고 그라츠에 도착하는 경우 ESN 사이트에서 픽업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사무실 office hour와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픽업 서비스를 신청할 때 기숙사 열쇠를 받아달라고 적으면 기숙사 열쇠를 가지고 지정한 장소로 pick up을 하러 옵니다. 편하게 기숙사까지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업

성적이 1-5의 숫자로 나옵니다. 1이 A, 5가 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 German Intensive Course

2월 초에 월-금 오전시간에 독일어는 배우는 German Intensive Course는 Uni Graz의 수업에 TU Graz의 학생들도 참여하는 형태로 학기 시작 전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총 6 ETCS credit을 받을 수 있고, 수업 전체가 독일어로 진행됩니다. 저는 독일어를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A1.1-A 코스를 수강해서 레벨테스트를 칠 필요가 없었지만 다른 코스를 듣고 싶다면 레벨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식료품, 음식 이름, 숫자, 시간 등 오스트리아에서 살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2.2 전공-Infomatik

컴퓨터공학에 해당하는 전공은 Infomatik으로 여기 속해있는 학부, 대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부 수업의 경우는 독일어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공선택에 해당하는 과목의 경우 대부분 영어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독일어 A1.1-A를 마친 상태라 영어 수업만 골라들었습니다. Infomatik 과목의 경우 수업시간에 출석을 요구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에서 과제나 시험,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첫 수업은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은 없거나 기말고사만 있는 경우가 많고, 시험이 있는 경우 시험을 따로 신청하셔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귀국 일정과 시험 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면 대부분 일정을 조정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2.1 Computational Intelligence

이론과 실습과목을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이론과 실습 과목 모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coursera의 machine learning 강좌와 내용이 유사합니다. 이론 수업 진도에 따라 과제가 나오는데 이 과제로 실습 과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과제는 3인 1조로 팀을 만들어 팀별로 제출합니다. 제가 수강한 학기의 경우 5개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전반부 과제는 쉬운 편이고, 후반부 과제는 전반부 과제에 비해 문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총 점 100점으로 환산하여 80점 이상 얻으시면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각각 50퍼센트 이상의 점수를 얻지 못하면 5를 받습니다.

2.2.2 Mobile Application-IOS

다양한 프레임워크로 ios 앱 개발을 해보고 앱스토어에 올려보는 과목입니다. 조별로 Swift, react native, ionic, unity 등 프레임워크 하나를 정해서 앱 개발을 하고 앱스토어에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초반에 스타트업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business model, marketing, 프레임워크 등을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강연이 끝나면 수업이 없습니다. 그 외에 Framework workshop과 Final presentation을 준비해야 합니다.

2.2.3 Introduction to Knowledge Technology

Knowledge Technology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론 과목입니다. Knowledge Technology라는 영역에 대해 폭넓게 다루는 대신 깊이가 없습니다. Rule based system, RDF/RDF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achine Learning, Information Retrieval에 대해 한두시간씩 설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조별과제가 2개 있었는데 문제도 4개밖에 없고 내용이 쉬워서 과제도 굉장히 쉽습니다. 매 과제 제출 후 과제에 대한 인터뷰가 있는데 이 인터뷰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도 쉬웠습니다.

2.3 Uni sports

체육 수업을 신청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과목별로 20-40유로 정도의 수강료를 내야합니다. 트램펄린, 댄스, 암벽등반, 사격, 펜싱 등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강좌도 많으니 강좌 살펴보고 들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3 생활

3.1 계좌

거주등록을 하고 거주등록증, Letter of Acceptance, 여권을 들고 Sparkasse에 찾아가면 계좌와 debit card를 발급해줍니다. debit card가 국제학생증 카드라 한국에서 따로 국제학생증을 만들어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debit card의 경우 우편으로 오는데 1-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3.2 폰 요금

주변 친구들은 Hofer에서 선불 심카드를 사서 충전해가면서 썼습니다. 저는 오스트리아 친구의 추천으로 Educom이라는 통신사의 vamos 요금제를 사용했는데 무료 심카드와 매달 30GB의 오스트리아 내 LTE에 EU 로밍 데이터 2.8GB, 통화와 문자를 제공합니다. 통화와 문자는 거의 사용한 적이 없고, 학기 중에 여행을 다니면서 로밍 데이터를 잘 사용했습니다. 단, EU와 영국 외의 국가를 여행할 때는 데이터 로밍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몬테네그로를 여행하는데 5MB 데이터를 사용했다가 49.5유로가 청구된 적이 있습니다.

3.3 쇼핑

옷의 경우 야코미니부터 홉트플라츠 사이에 H&M, Zara 등이 있으니 거기서 쇼핑하셔도 되고, Primark, Murpark, Citypark에 가서 쇼핑하셔도 됩니다. 생활용품은 IKEA나 야코미니 근처에 TEDi, kik 같은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문구류는 우체국, 학교 인쇄실, Libro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식료품은 Lidl, Hofer, Spar, Billa 등의 슈퍼마트에서 살 수 있습니다. Hofer는 냉동식품, 가공식품이 싸고 Lidl도 Spar, Billa보다 대부분의 상품이 싼 편입니다. 대용량 상품이 부담스러울 땐 Spar나 Billa에 가면 Lidl보다 적은 양의 상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Opera house 옆에 Farmer's market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한국 식재료의 경우 BoboQ, Easy Asia에서 대부분 구할 수 있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물엿, 식초, 액젓, 다시다 등 기본적인 양념은 다 있으니 한국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Easy Asia가 BoboQ보다 가격이 싸입니다.

4 소감

초과학기에 교환학생을 가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지원하기 전까지도 많이 망설였는데 지금은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해주신 공과대학에 감사드립니다.